

논 단

상호대차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서울대학교 상호대차실을 중심으로

정 노 옥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목 차]

I. 서론

II. 상호대차 개요

1. 용어 정의
2. 업무 처리 과정
3. 상호대차 운영시스템

IV. 상호대차 이용 유형

1. 국내 원문복사
2. 국내 실물 상호대차
3. 국외 상호대차

V. 향후 과제

III.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

1. 추진경과 및 협력기관
2. 상호대차 이용 현황

I. 서론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이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의 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서관 패러다임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장서의 개념도 물리적인 소장보다는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서관 협력 활동인 상호대차 서비스는 개별 도서관의 공간, 자료, 예산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개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학술정보자원을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접근 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호대차 신청 및 제공 서비스 건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학술정보자원 공동 활용 평가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 기관은 RISS 상호대차 시스템의 국내 원문복사 서비스 신청·제공 건수 및 담당 사서 선호도 부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상호대차 서비스 사례 및 추진 경과,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용 유형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상호대차 개요

1. 용어 정의

도서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 ILL)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공하지 못할 때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협정을 맺은 도서관 간에 소장 자료를 서로 빌려주는 제도¹⁾이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한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동일 행정 계통 산하 또는 동일 캠퍼스에 소재하지 않은 다른 도서관으로 자관의 소장 자료를 빌려주거나 그 자료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업무 처리”²⁾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호대차란 단행본을 주 대상으로 도서관 간에 상호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관에 미 소장 중인 자료의 복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복사를 의뢰받은 자료를 복사하여 타 기관으로 제공해주는 업무도 넓은 의미에서 상호대차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³⁾ 이처럼 상호대차의 개념적 정의는 단행본의 상호대출이라는 협의의 정의에서 원문복사 제공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정의까지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호대차의 의미로 원문복사와 실물 상호대차(대출)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1)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2010) p.96.

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 121.

3) 김기세, “정보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상호대차 활성화방안 연구”, 사대도협회지, 창간호(2000), p. 43.

2. 업무 처리 과정

상호대차 처리 과정은 신청과 제공 업무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신청 업무는 우리 기관 소속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타 기관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를 우리 이용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자료의 신청과 관련된’ 업무이다. 제공 업무는 타 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우리 기관에 소장된 자료가 현재 대출이나 복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제공 여부를 알려주고, 자료를 발송하는 ‘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이다.

상호대차 웹 기반 시스템 중 RISS 원문복사 시스템의 업무별 처리 단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상호대차 업무 처리 단계

구분	업무명	진행상태	내 용	신청 업무	제공 업무
진 행 중	승인대기	웹신청	이용자가 RISS에서 신청한 단계. 웹신청 승인을 거쳐야 신청과정이 진행됨	웹신청 승인/승인불가	
	예약신청	예약신청	제공기관이 일시중단일 경우 예약신청 처리를 한 단계	예약신청/취소	
	접수대기	처리중	제공기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한 상태	신청취소 요청	발송,제공불가, 전달
		신청취소 요청	RISS에서 신청자/신청기관 담당자가 신청취소요청을 한 상태. 취소승인을 받아야 취소됨		신청취소승인/불가
	발송준비	처리중	제공기관에서 ‘제공응답’을 한 후 발송 처리 하기 이전 단계	신청취소 요청	발송,제공불가, 전달
		신청취소 요청	RISS에서 신청자/신청기관 담당자가 신청취소 요청한 상태. 취소승인을 받아야 취소됨		신청취소승인/불가
	발송완료	발송	제공기관에서 ‘발송’ 처리를 하여, 신청기관에서는 자료의 도착을 기다리는 단계	도착확인	발송되돌리기, 비용 수정
		비용수정	‘발송’ 처리된 자료의 비용을 제공기관에서 수정한 상태		
완료	도착확인	도착확인	제공기관에서 ‘발송’한 자료가 도착하여 신청기관에서 ‘도착확인’을 한 단계	도착확인 되돌리기	
	제공불가	제공불가	제공기관에서 제공불가 처리하여 완료된 건	복사편집 신청	
	신청취소	신청취소	제공기관에서 신청취소 승인		

		응답	처리하여 완료된 건		
		예약취소	신청기관에서 예약 신청 중인 건을 취소하여 완료된 건		

3. 상호대차 운영 시스템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관종별, 지역별 대학도서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기관 간 종합목록 발행 작업 등 상호협력을 진행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보의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양질의 정보 획득 등 정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 단위의 도서관 협력 활동에서 국가 단위의 자료 제공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L),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KORSA) 등으로 이동되었다.⁴⁾ 국내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는 2000년을 전후로 국가 차원의 공공 시스템 구축이 확대되면서 학술 연구기관들의 정보 공유가 활발해졌으며 대학 및 연구 도서관 중심의 원문복사 서비스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국내 주요 웹 기반 상호대차 운영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3.1.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RISS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1998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학술 연구자를 위한 학술정보 검색 서비스와 상호대차, 종합목록,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등 대학도서관 지원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구]첨단학술정보센터)에서는 1997년부터 전국 대학도서관의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소장정보 종합목록 DB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후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학술 연구 기관 간의 학술정보 공동활용 및 분담 수서 유도, 학술 연구자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제 구축을 위하여 1999년부터 자료 공동 이용 협약을 기반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4년 2월 웹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WILL) 개발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 간 소장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원문복사 및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2월 현재 원

4) 고은님,곽병일,이운정, “대학도서관의 도서관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15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 p. 147.

문복사 서비스 552개 기관, 대출 서비스 303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우리 기관도 참여하여 활발히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일반 이용자 대상의 복사 서비스 확대, 일본 NII와의 상호대차 연계,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 서비스' 연계, 전자배송(dCUBE) 서비스 도입, 중국 CALIS 복사 서비스 연계, 해외논문 구매대행인 E-DDS 서비스 등 매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3.2.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http://scholar.ndsl.kr>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웹 기반 정보시스템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2001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2006년 1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주관 기관이 이관되었고 기존에 KISTI에서 운영하던 yes KiSTi와 NDSL을 통합하여 2008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로 명명하였다. 2010년에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NDSL은 주로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 분야 최신 정보 및 인쇄저널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 저널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통합 검색 및 One-click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정보의 유형으로는 학술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동향 분석 정보, 산업 표준 등 다양하며 원문 URL 링크 정보 및 전자저널 라이선스 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2월 현재 634개 협력 기관(대학 308, 연구소 102, 기업 105, 공공 84, 의료 35)이 참여하고 있다.

3.3.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KORSA) <http://www.kor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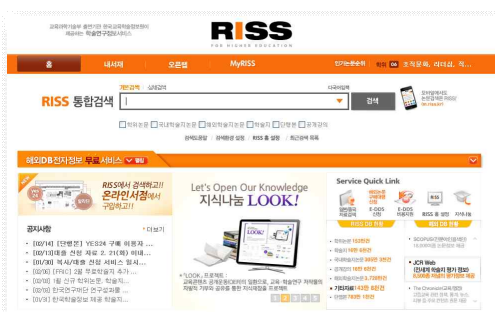
1999년 11월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포항공대, 원광대, 조선대, 목포대, 호남대 등 6개 대학은 웹 기반 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후 2000년 1월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⁵⁾(KORSA. KOrea Resources Sharing Alliance)를 결성하여 회원 기관 간 학술지 공동활용을 위해 학술지 소장정보 및 목차 DB를 공동 구축하여 상호 원문을 제공하였다. 2004년부터는 도서관의 업무 수행 및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각 도서관 및 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

5)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 홈페이지 <http://korsa.or.kr/> [인용 2012.2.26.]

를 다운 받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인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정보서비스 주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 해외 학술지 공동 이용을 목표로 하였지만, KERIS, KISTI와의 원문복사 서비스 중복으로 인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도서관 패키지를 회원 기관에 배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ASP 프로그램과 이용료는 무료이나 매년 연회비는 유료이며, 2012년 2월 현재 240여 개 회원 기관이 참여 중이다.

3.4.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MLA) <http://www.medl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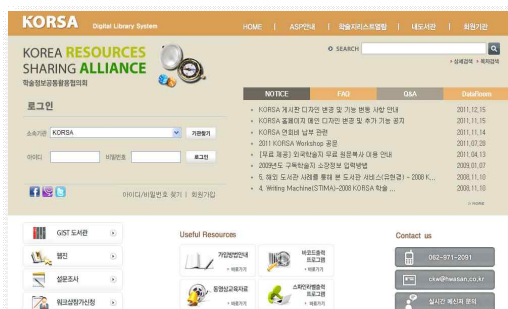
1968년 6월 창립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는 전국의 의학도서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학교육 및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2년 2월 현재 169개 회원 기관(대학 56, 병원 90, 연구소 13, 제약회사 10)간 5,700여 종의 국내 소장 의학 학술지 공동활용이 가능한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실물 상호대차는 실시하지 않고, 의학 관련 학술잡지 종합목록시스템(MEDLIS)을 기반으로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미 소장 자료는 미국 NLM과 연계하여 해외 원문복사 서비스(MEDLARS)를 제공하고 있다. 협의회 가입비와 연회비는 유료로 원문복사 서비스 신청은 이용자의 소속 기관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외에 의학 관련 전자정보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RISS 검색 화면



[그림 2] NDSL 검색 화면



[그림 3] KORSA 검색 화면



[그림 4] MEDLIS 검색 화면

3.5. 외국학술지지원센터(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는 대학도서관 활성화 및 자원 공유 확대를 위하여 국가가 외국학술지 구독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예산 이상의 대응 투자를 참여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구독 학술지는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며, 외국학술지의 기관별 중복 구독을 배제하고 외국 학술자원을 국가가 확보하여 공동활용하는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6년 8월 전기·전자·통신 분야 FRIC 지정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6개 분야, 2011년 7월 2개 분야를 추가 지정하여 2012년 현재 총 9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우리 기관은 2009년 12월 자연과학 분야 지원센터로 선정되었고, 센터 블로그(<http://seoulfric.tistory.com/>)도 개설하여 학술지 최신 목차 정보, 자연과학 분야 학회 동향 등 과학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9개 지원센터 현황은 [표 2]와 같다.⁶⁾

[표 2] FRIC 주제 분야 현황

센터명	분야	종수	주요 학문 분야	지정 년도
강원대	생명공학	343종	약학, 생물학 등	2009
경북대	전기·전자·정보통신	1,034종	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공학 등	2006
고려대	인문과학	1,630종	문학, 어학, 역사학, 철학 등	2009
부산대	기술과학	976종	건축 토목공학, 기계 재료공학, 조선, 항공우주	2009
서울대	자연과학	1,950종	수학, 물리/천문학, 화학, 지구과학	2009
연세대	임상의학	402종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2009

6)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ric.kr/user/> [인용 2012.2.26.]

이화여대	교육·사회학	801종	신문·방송학, 교육·사회학	2011
전북대	농축산학	504종	농축산학, 수산, 해양학 등	2009
충남대	행정·경영학	269종	정치·외교학, 법률 행정학, 경제·경영	2011
계		7,909종		

※미 지정 주제 분야 : 환경/에너지, 예/체능

국내 9개 FRIC을 통하여 7,900여 종의 외국학술지 무료 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구독 학술지를 소속 기관의 연구자뿐 아니라 타 기관 소속 및 일반 연구자들을 위해서 전액 무료로 제공하므로 원문복사 이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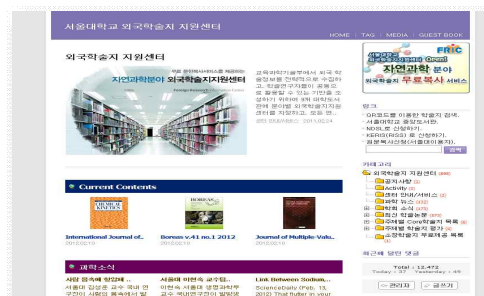
국내 공동활용 건수는 2010년 13,420건에서 2011년 34,065건으로 154%의 이용률 급증을 보임에 따라 그 활용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용 방법은 FRIC, RISS, NDSL 등 국내 상호대차 웹 기반 시스템에서 외국학술지 검색 결과 상세정보의 '소장기관' 리스트에 [무료]OO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확인한 후 신청하며 신청한 자료는 이용자의 소속 기관으로 도착한다.

향후 미 지정 분야의 FRIC 확대와 더불어 국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외국학술지 구독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5]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그림 6] 서울대학교 FRIC 블로그

III.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

1. 추진 경과 및 협력 기관

서울대학교 상호대차실은 2007년 이전에는 연구지원실, 연구정보지원실, 정보지원

실, 전자정보실 등의 부서에서 상호대차 업무 외에 Web DB 이용교육, 연구지원 서비스, CF 자료 열람, 위성 TV 및 검색용 PC 관리 등 유관 업무를 병행하였다. 2007년 2월 도서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상호대차실'이라는 부서 명칭으로 고유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하게 하였다. 1990년대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상호대차 서비스 추진 경과를 10년 단위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상호대차 서비스 추진 경과

구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OCLC ILL 도입 -1999. 3 RISS 복사그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 KORSA 복사그룹 참여 -2002.2. 연세대 상호대차 협약체결 -2003.9 소장학술지 원문 서비스 시행 -2004.12. 일본 NII 복사 참여 -2007. 2 상호대차실 신설 -2007.10. 성균관대, 한림대 상호대차 협약체결 -2007.11. 독일 Subito 가입 -2009. 원문복사 업무 도서관 자체운영 결정 -2009.1. 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 도입 -2009.1. 고려대 상호대차 협약체결 -2009.2.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도서관 저작권보상금 약정체결 -2009.4 NDSL 원문복사 참여 -2009.12.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자연과학 분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3. 중국 CALIS 복사 참여 -2010.7. FRIC 무료 원문복사 실시 -2011.4. 전자배송(dCUBE) 참여 -2011.4. 캠퍼스간 원문복사 시스템 오픈(연건/수원도서관 온라인신청) -2011.9. 국내학술지 무료복사 서비스 실시 -2012.3. 이화여대 상호대차 협약 기관 확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최초 OCLC ILL도입 ※RISS 복사그룹 참여로 타기관과의 자원 공유 협력 활동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Subito 가입으로 국외 원문 입수기간 대폭 단축 ※상호대차 비용지원으로 실물택배 비용 전액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배송 참여로 국내 자료 원문 입수기간 대폭 단축 (1일 이내 제공) ※무료 이용 자료 확대(타 기관 소장 학술논문, FRIC 자료, 전액무료)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호대차 서비스는 2000년을 전후로 국가 차원의 공공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협력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관은 2000년대 후반부터 상호대차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담당 서비스 및 상호대차 협력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내 원문복사 신청·제공 서비스
- ② 국내 실물 상호대차(대출) 신청·제공 서비스
- ③ 국외 원문복사 신청·제공 서비스
- ④ 국외 실물 상호대차(대출) 신청 서비스
- ⑤ 캠퍼스 간 원문복사 서비스 : 연건 캠퍼스, 수원 보존도서관 자료
- ⑥ 상호대차 비용 지원 서비스 : 국내·외 실물 상호대차 택배비용 지원
- ⑦ 국내외 타 기관 열람 의뢰서 발급 서비스 등

[표 4] 상호대차 협력 기관 현황

구 분		협력 기관
국내	원문복사	RISS(540여 기관), NDSL(630여 기관), FRIC(9개 기관) KORSA(240여 기관), MEDLIS(170여 기관)
	실물 상호대차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림대, 이화여대
국외	원문복사	OCLC(미국, 캐나다권), Subito(독일어권), NII(일본국립대학), CALIS(중국대학), MEDLARS(미국)
	실물 상호대차	OCLC(미국, 캐나다권), Subito(독일어권), NDL(일본국회도서관)

2. 상호대차 이용 현황

최근 3년간 본교 연구자 및 타 대학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연도별 상호대차 이용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연도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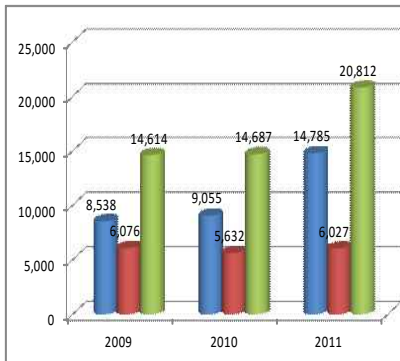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비고
국내	원문복사	신청	2,919	2,815	3,357	'09대비 '11년 *복사제공 급증 *대출제공 급감
		제공	7,472	8,010	14,099	
		계	10,391	10,825	17,456	
	실물상호대차	신청	859	932	937	
		제공	1,018	997	588	
		계	1,877	1,929	1,525	
	합계		12,268	12,754	18,981	
국외	원문복사	신청	1,061	888	916	'09대비 '11년 *복사제공 급증 *대출신청 감소
		제공	48	48	98	
		계	1,109	936	1,014	
	실물상호대차	신청	1,237	997	817	

		제공	-	-	-	
		계	1,237	997	817	
	합계		2,346	1,885	1,831	
총계			14,614	14,639	20,812	이용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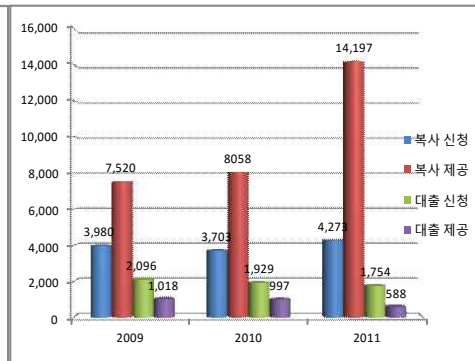
※협력기관 간 상호이용 건수를 합한 수치로 신청은 우리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제공은 타 기관의 요청을 받아 우리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내외 전체 상호대차 이용 건수는 증가하였다. 2011년의 경우 월 평균 1,700여 건, 1일 70~80여 건으로 신청보다 제공이 약 3~4배 비중이 많다. 국외는 신청 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국내는 원문복사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교 이용자는 원문복사 70%, 대출 30% 비중으로 원문복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1년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의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 시행과 전자배송 방식 도입으로 원문복사 제공 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관은 2006년 이후부터 KERIS에서 평가하는 국내 원문복사 신청·제공 및 전국의 상호대차 담당 사서의 선호도 조사에서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위 통계를 기반으로 3년간 연도별 이용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그림 8]과 같다.



[그림 7] 연도별 신청/제공 이용 현황



[그림 8] 연도별 복사/대출 이용 현황

IV. 상호대차 이용 유형

1. 국내 원문복사

국내 원문복사 이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교 이용자들의 상호대차 요청이 많은 RISS 상호대차 시스템의 최근 3년간의 이용 통계를 조사하였다.⁷⁾

1.1. 자료 형태별 이용 분석

RISS 원문복사 신청 건의 자료 형태별 비율은 [표 6]과 같으며 단행본, 해외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표 6] 자료 형태별 신청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RISS 국내복사	단행본	1,277	61	1,389	63	1,565	58	단행본 60%
	학위논문	253	11	247	11	263	10	
	국내학술지	329	16	96	4	194	7	
	해외학술지	250	12	482	22	678	25	
	계	2,091	100	2,214	100	2,700	100	

원문복사는 학술지보다는 단행본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단행본 장서 확충 노력 및 복사 요청이 많은 기관과의 협약 기관 확대 등 단행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상호대차실에서는 정기적으로 단행본 상호대차 요청 자료 목록을 수합하여 수서 담당부서로 구입 요청을 하고 있다. 본교 이용자의 RISS 단행본 복사 신청 상위 10 랭킹 기관은 [표 7]과 같다.

[표 7] RISS 단행본 신청 상위 기관 (‘11년말 기준)

순 위	신청기관	건수	단행본 신청 비율	비고
1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152	9.71	신규 협약기관
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24	7.92	대출협약기관
3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104	6.65	대출협약기관
4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76	4.87	
5	서강대학교 중앙도서관	73	4.66	
6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55	3.51	
7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41	2.62	
8	영남대학교 도서관	40	2.56	
9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1도서관	34	2.17	
10	경희대학교 도서관	32	2.04	
1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32	2.04	

7) WILL 홈페이지 http://will.riss.kr/librarian/html/sub_04.jsp [인용 2012.2.26.]

1.2. 발송 방법별 이용 분석

2009년 대비 2011년 발송 방법별 신청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통우편 배송이 급감하고 전자배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배송은 자료 제공의 신속성으로 인해 신청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점차 그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발송 방법별 신청 현황

(단위: %)

구 분	발송방법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신청비율	소요기간	신청비율	소요기간	신청비율	소요기간	
RISS 국내복사	보통우편	78	6.6	77	5	61	5.29	
	특급우편	14	2.96	13	2.54	11	2.62	
	팩스	8	1.12	9	0.61	2	0.76	
	전자배송	-		-		25	0.6	'11.4월~
	원문링크	-		1	3.06	1	4.04	
	계	100		100		100		

전자배송은 2008년 12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도서관 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약 체결로 인해 가능해졌다. 이에 KERIS에서는 학술자원 디지털전송 시스템(dCube : Digital Document Delivery)을 개발함에 따라 전자배송이 보편화되어 소요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dCube는 인쇄형 학술 저작물을 스캔하여 디지털 문서를 생성한 후 신청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협력 도서관 간 배송으로 한정하며, 이용자가 자료를 수령할 때는 파일 형태가 아닌 인쇄물 형태로 제공받게 된다. 전자배송은 정보 입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시켜 학술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6일 이상이나 소요되던 원문복사 서비스 소요 기간이 불과 2년 사이에 신청 후 만나절 만에 신청 도서관으로 도착하게 되었으니 실로 놀라운 서비스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1.3. 신분별 이용 분석

신분별 이용 분석 결과, 가장 이용이 많은 신분은 박사] 석사] 교수] 대학생 순으로, 대학원생 이상이 전체 이용자의 93%로 나타났다. 대학생 이용은 극히 낮으므로

대학원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략과 홍보가 필요하다.

[표 9] 신분별 이용 현황

(단위: %)

구분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RISS 국내복사	대학생	115	5	127	6	199	7	6
	석사	465	22	511	23	875	32	93
	박사	730	35	607	27	711	26	
	교수	500	24	664	30	636	24	
	시간강사	138	7	161	7	102	4	
	연구원	65	3	78	4	115	4	
	교직원	68	3	48	2	60	2	
	기타	10	1	18	1	2	1	1
	계	2,091	100	2,214	100	2,700	100	

아울러 정확한 신분별 이용 분석을 위해서는 RISS나 NDSL 시스템의 회원 정보 업데이트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호대차 시스템의 회원 정보는 최초 회원 가입년도의 신분이므로 소속 기관의 신분 변동 정보와 서로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담당 사서는 매년 이용자의 신분, 이용 기간 등 이용자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 국내 실물 상호대차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상호협력과 효과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내 5개 대학과 학술연구 정보자료 상호이용 협정을 체결하여 실물자료의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음악, 여성학 관련 장서가 강점인 이화여대 도서관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물 상호대차 협약 기관 현황 및 이용 통계는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 국내 실물 협약 기관 현황

구 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성균관대학교	한림대학교
협약체결일	2002. 2.	2008. 12.	2012. 3.	2007. 10.	2007. 10.
이용 범위	중앙도서관, 신촌소재 분관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중앙도서관, 신촌소재 분관	학술정보관	일송기념도서관
이용 대상	석·박사과정 이상				전임교원
대출책수	1인 3책 10일		1인 2책 10일		
자료 배송	택배, 쿼서비스, 직접방문				

[표 11] 협약 기관별 이용 통계

기관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연세대	신청	76	20	121	242	286	270	325	635	634	592	3,201
	제공	103	61	145	392	570	583	701	599	527	203	3,884
고려대	신청							7	163	231	255	656
	제공							-	385	423	351	1,159
성균관대	신청						-	13	43	58	73	187
	제공						6	39	23	23	20	111
한림대	신청						-	9	18	9	17	53
	제공						-	5	11	24	14	54
계	신청	76	20	121	242	286	270	354	859	932	937	4,097
	제공	103	61	145	392	570	589	745	1,018	997	588	5,208

2009년을 기점으로 실물 상호대차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국내외 실물 상호대차(대출)에 소요되는 택배비용 및 해외 우송 요금을 도서관에서 전액 지원하는 상호대차 비용 지원 서비스를 과감하게 도입함에 따라 대출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비스 도입 이전에는 이용자가 택배비용 및 우송 요금을 전액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발송하였다.

상호대차 비용 지원은 단순히 개인 이용자에게 택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타 기관을 통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료 구입비용의 연장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008년 354건 신청에서 2009년 859건 신청으로 전년 대비 **143 %**의 놀라운 신청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신청건이 제공 건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이용 유형에도 변화가 있었다.

최근 3년간 협약 기관 간 이용 통계를 조사한 결과, 상호이용이 많은 기관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림대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이용 건은 연세대 60%, 고려대 34%, 성균관 5%, 한림대 1%로 연세대, 고려대와의 상호이용이 가장 활발하였다. 따라서 대출 협약 기관을 신규 확대할 경우에는 RISS 단행본 복사 요청이 많은 기관, 장서 수, 특성화된 주제 분야 등 여러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기관의 부족한 장서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협력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협약 기관과의 이용 신분 확대, 대출 책 수 확대, 대출 기간 연장, 연체료 인하 등 세부 정책도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국외 상호대차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는 자료는 국외 협력 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외는 주로 OCLC ILL과 Subito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며 자료 특성에 따라 일본 NACSIS-ILL(NII), 일본 국회도서관(NDL) 중국 CALIS, 미국 MEDLARS, 영국 BLDSC, ETHOS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국외 상호대차 진행 시 자료 유형, 대출·복사 조건, 요금, 소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며, 본고에서는 OCLC, Subito, NACSIS-ILL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이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3.1. 미국 OCLC ILL

3.1.1. 개요

초기 OCLC(Ohio College Library Center)는 1967년 Ohio주의 대학도서관들이 서지레코드 공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었다. 이후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는 세계 정보의 최대 접근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정보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 협력체로 발전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종합목록을 이용한 상호대차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First Search와 같은 DB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세계 최대 온라인 종합목록 DB인 OCLC WorldCat DB를 통한 자원 공유(Resource Sharing) 서비스로 전 세계 약 2만여 회원 기관이 참여하고 2억 4천만여 건의 서지레코드를 바탕으로 ILL((Inter-Library Loan)서비스가 이루어진다. WorldCat DB에는 10초마다 새로운 서지 레코드가 추가되고, 4초마다 OCLC 회원 기관(Lender) 간 상호대차 레코드가 생성되어 현재 상호대차 레코드는 1억2천8백만여 건이다.

상호대차 신청은 이용자가 OCLC First Search DB(ArticleFirst, ECO, WorldCat 등)에 수록된 서지 레코드를 검색하여 직접 ILL을 신청하며, 담당 사서는 사서용 ILL 웹 페이지에서 이용자 신청 건을 리뷰한 후 5개 Lenders(의뢰 기관)를 선정하고 자료입수일, Maximum cost, Borrowing notes등 이용자의 요청 사항을 수정하여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한다. ILL 신청 레코드에는 고유의 OCLC ILL no.가 생성되므로 현재 진행 상황(제공 도서관, 진행 상태, 발송 일자, 요금 등) 조회가 가능하다.

3.1.2. 특징

전 세계 협력 도서관의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학술지 논문의 전자 전송 및

복사, 단행본, 마이크로필름·피시 등의 비도서 자료까지 대출되어 제공된다. 특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본, 절판·품절 도서, 지도자료, 팸플릿(pamphlet), 악보, 회의록 등도 제공되므로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더구나 OCLC ILL 신청 건의 약 60%를 무료로 제공 받고 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평균 소요 일수는 복사의 경우 당일에서 ~ 10일, 대출 7 ~ 20일 가량 소요되며, 회원 기관들의 ILL 제공 정책이 상이하므로 Best Lenders 선정이 OCLC ILL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Key이다.

OCLC ILL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풍부한 제공 자료와 무료 제공 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2011년 연간 신청 통계 분석 결과, 신청 자료의 약 80%를 제공 받았고 그 중 60%는 무료로 제공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료 제공에서 유료 제공으로 요금 정책을 변경하는 기관들이 많아졌으므로 OCLC Lenders의 대출, 복사 요금 정책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은 상호대차 비용 지불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므로 무료로 제공 받다가 갑자기 유료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유료 복사인 경우 평균 비용은 건당 약 \$10, 대출은 \$20 내외로 Lenders간의 대출, 복사 비용이나 소요 기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 복사의 경우 당일 제공도 가능하지만 대출 자료가 선편으로 배송될 경우에는 3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하여 서비스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므로 Lenders 선정 시 주의가 요망된다.



[그림 9] WorldCat 기본 검색 화면

3.1.3. OCLC ILL 이용 분석⁸⁾

[표 12]는 최근 3년간 OCLC ILL을 통해 상호대차 신청이 이루어진 총 3,559건의 월별 신청 데이터 통계이다.

8) OCLC 통계 홈페이지 <http://www.stats.oclc.org> [인용 2012.2.19.]

[표 12] 3년간 OCLC ILL 신청 통계

구분	2009년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99	126	133	196	168	119	140	129	175	104	102	81	1,572
대출	55	50	47	76	94	69	60	68	88	40	56	33	736
복사	29	38	52	63	65	41	47	31	70	44	41	41	562
제공	84	88	99	139	159	110	107	99	158	84	97	74	1,298
제공불가	25	35	25	39	25	22	24	21	21	21	15	24	297
소요기간	14.76	13.61	10.01	8.38	10.95	10.6	9.59	11.4	9.84	11.26	10.97	10.53	10.99
무료	47	55	52	84	96	61	44	44	70	37	49	45	684

구분	2010년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103	102	109	101	63	105	82	67	68	106	68	65	1,039
대출	42	44	40	32	46	46	31	19	23	40	44	32	439
복사	17	38	39	33	18	23	33	34	34	41	19	21	350
제공	59	82	79	65	64	69	64	53	57	81	63	53	789
제공불가	27	25	16	22	12	36	18	14	11	25	5	12	223
소요기간	10.88	11.96	7.28	10.69	12.47	11	8.3	10.1	10	9.1	12.9	11.3	10.49
무료	29	43	51	45	37	38	36	35	33	49	38	34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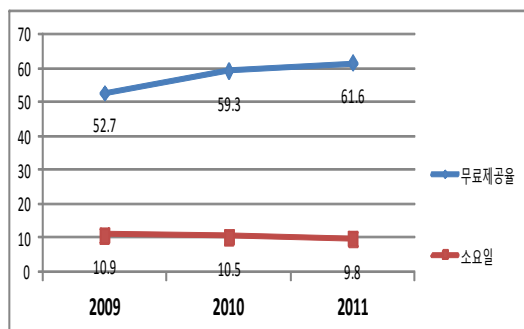
구분	2011년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91	83	105	90	44	76	93	76	60	89	78	63	948
대출	38	40	40	38	26	42	31	27	31	37	47	42	439
복사	29	27	41	30	13	27	31	29	18	21	18	14	298
제공	67	67	81	68	39	69	62	56	49	58	65	56	737
제공불가	24	16	24	22	5	9	22	13	11	20	18	18	202
소요기간	8.8	11.8	10	7.2	15	8.1	8	8.11	10.2	9	11.2	11	9.86
무료	41	37	49	50	27	35	32	34	31	44	42	32	454

최근 3년 간 이용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질은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료 제공율이 52.7%에서 61.6%로 8.9% 증가하였으며, 평균 소요 기간(자료 신청일로부터 자료 도착일)은 10.9일에서 9.8일로 1일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 질은 더 높아졌다. 제공 불가(Unfilled) 사유로는 대체로 대출 중, 대출 불가 자료, 자료 상태 불량, 서지 불명, 서가에 없는 경우 등으로 신청 레코드의 상태가 제공 불가로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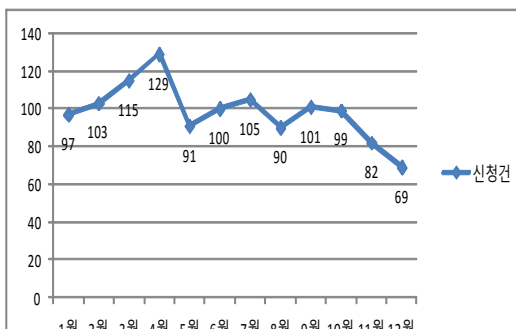
OCLC ILL을 자주 이용하는 신분은 주로 석사과정 이상으로 본교를 졸업한 동문 회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서양사학, 동양사학, 고고미술사학, 종교학, 언어학, 불

문학 등 주로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애용하고 있다.

3년간의 이용 통계 평균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3~4월은 국외 상호대차 신청이 많았으며 11~12월은 신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OCLC 무료제공율 및 소요기간



[그림 11] OCLC 월별 이용통계

[표 13]은 우리 기관이 자주 이용하는 OCLC Lender 대출 신청 상위기관 순위로 Lender 선정 시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그 외 기관으로는 INU, VWM, ORC, CBY, WTU, ERE, IOG, CDS 등이 있다.

[표 13] OCLC 대출 신청 상위기관

No.	Lender code	Full Name	Charge
1	AMH	Amherst college	Free
2	IQU	Univ. of New Mexico	Free
3	FDA	Florida State Univ.	Free
4	MTH	Mount Holyoke College	Free
5	PAU	Univ. of Pennsylvania	\$15
6	MDY	Middlebury College	Free
7	NNM	Davidson College	Free
8	EXW	Western Michigan Univ.	Free => \$10
9	SOI	Southern Illinois Univ.	\$10
10	TXH	Univ. of Houston	Free

[표 14]는 우리 기관이 자주 이용하는 OCLC Lender 복사 신청 상위 기관 랭킹 리스트이다. 그 외 기관으로는 TWH, XII, XLM, ORN, KNM, IOE, BTS, CBY, WUM(\$11), LNM(\$11) 등이 있다.

[표 14] OCLC 복사 신청 상위 기관

No.	Lender code	Full Name	Charge
1	NNM	Davidson College	Free
2	ICY	Augustana College	Free
3	FDA	Florida State Univ.	Free
4	IQU	Univ. of New Mexico	Free
5	TXH	Univ. of Houston	Free
6	IAS	Univ. of Illinois at Springfield	Free
7	IOD	Drake University	Free
8	EXW	Western Michigan Univ.	Free => \$10
9	MDY	Middlebury College	Free
10	VYF	Fordham Univ.	Free

2011년 OCLC 해외 학술지 이용 현황⁹⁾을 살펴보면, 국외로 OCLC 복사 요청한 해외 학술지 종수는 총 198종으로 그 중 신청이 많은 해외 학술지 순위는 [표 15]와 같고 주로 문학, 순수과학 분야가 많았다.

[표 15] OCLC 학술지 신청 순위

순위	학술지명	ISSN	출판사	건수	DDC
1	Bulletin	0987-7940	Université de Tours	11	840
2	Dickens Studies Annual	0084-9812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7	820
3	Arthuriana	1078-6279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6	800
4	Romance Notes	0035-7995	Univ. of North Carolina	3	840
5	Doklady,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0012-4966	Consultants Bureau Enterprises	3	570
6	Temminckia		Brill	3	590
7	Lessing Yearbook	0075-8833	Wayne State Univ. Press.	3	830
8	Contrast Media & Molecular Imaging Electronic Resource	1555-4317	Wiley	3	570
9	Jurisprudence	2040-3313	Hart Publishing	3	340
10	Annual Report	0536-6720	Superintendent of Government Printing,	3	910

3.2. 독일 Subito

3.2.1. 개요

Subito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도서관들의 상호대차 협력 네트워크

9) OCLC 통계 홈페이지 <http://www.stats.oclc.org> [인용 2012.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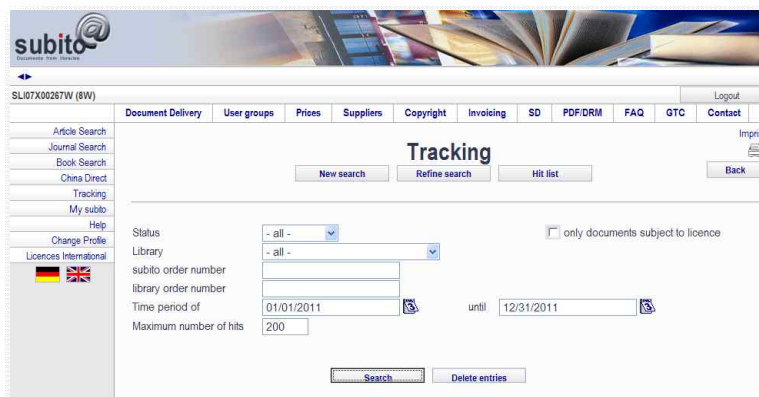
크로 독일어권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술자료들의 상호대차 공동 사업체이다. 1994년 독일연방 교육학술성과 주의 도서관 공동 사업체의 제안에 의해 발족한 프로젝트로 1997년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99년 12월 Subito 공동 사업체가 조합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복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영리·비영리, 개인, 도서관 등 8개 그룹으로 이용자 그룹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그룹마다 서비스 책정 요금이 다르다. 우리 기관은 2007년 11월 User group 8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여 단행본의 대출, 학술지 수록 논문 복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상호대차 신청은 회원 기관 고유 ID, PW 입력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색, 신청하는 사서 대행 방식이다.

3.2.2. 특징

Subito는 가입비, 연회비 등은 없지만 서비스 요금은 모두 유료이다. 복사 €6, 대출 €14로 월 1회 인보이스를 통하여 기관 정산을 한다. 복사의 경우 100% 전자 전송으로 서비스 되므로 제공 속도가 매우 빨라서 신청 후 30분 ~ 1 시간 이내 자료가 도착하기도 한다. 긴급을 요하는 복사 요청이 많고 매년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평균 소요 기간은 복사는 당일 ~ 2일, 대출 7 ~ 10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단행본 부분 복사와 저작권 제한이 있는 최신 학술지 논문은 복사 신청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3.2.3. Subito 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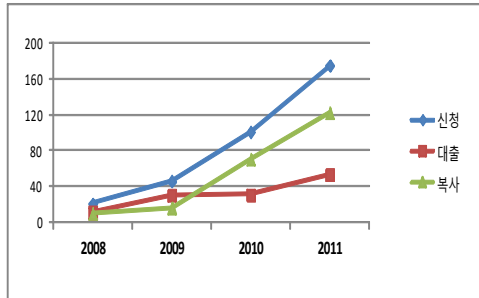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용 통계는 Subito 시스템의 Tracking 메뉴에서 기간별 신청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이용 통계 및 이용 추이는 각각 다음과 같다.



[그림 12] Subito 신청내역 조회 화면

[표 16] Subito 이용 통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비고
신청	20	46	101	174	341	7.7배
대출	10	30	31	53	124	4.3배
복사	10	16	70	121	217	11.1배
제공	18	43	89	149	299	
불가	2	3	12	2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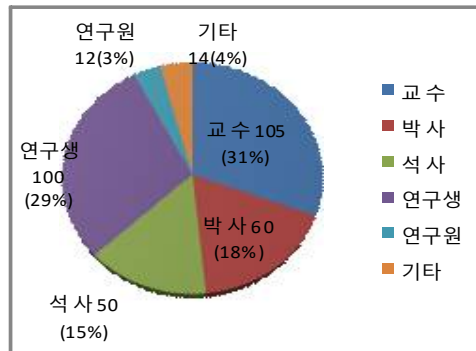
[그림 13] Subito 이용 추이

2011년의 경우, 2008년 대비 7.7배 증가, 대출은 4.3배, 복사는 11.1배 증가로 특히 복사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복사는 모두 전자배송으로 전송되므로 제공 속도가 매우 빠르다.

Subito 신분별 이용 통계는 [표17]와 같다. 4년간의 신분별 누적 분포로는 가장 이용이 많은 신분은 교수, 연구생, 박사, 석사 순으로, 교수 31%, 석박사 대학원생 및 연구생 62%, 기타 연구원 및 회원 7%로 대학생 이용은 없었다.

[표 17] Subito 신분별 이용 통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교수	7	14	30	54	105
박사	11	2	11	36	60
석사	2	17	3	28	50
연구생		10	42	48	100
연구원		2	6	4	12
기타		1	9	4	14
계	20	46	101	174	341



[그림 14] Subito 신분별 누적

학과별 순위로는 법학, 서양사학, 독어독문, 음악, 철학과 순으로 주로 독일어 사용이 많은 학과에서 주로 이용하였다. 단과 대학 순위로는 인문대 28%, 농생대 14%, 법대 14%, 자연대 8%, 공대 7%, 음대 4% 순이었다.

3. 일본 NACSIS-ILL(NII)

3.3.1. 개요

NACSIS-ILL은 일본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의 서지와 소재 정보의 온라인 DB인 NACSIS-CAT을 바탕으로 일본의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서로 제공하는 도서관 간에 발생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문헌복사 및 자료 현물대차) 메시지 교환을 전자화한 시스템이다.¹⁰⁾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NII)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한일 양국 간의 ILL 시스템을 제휴하여 2004년 11월 에이전트 방식으로 오픈한 이후 2007년 4월부터 본격 운용하였으며, 해외와의 ILL을 위하여 ISO-ILL용 게이트웨이 서버와 통신함으로써 해외 ILL 시스템을 구현한다.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NII)는 대학 공동 이용 기관으로 전체 학술커뮤니티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최첨단 학술정보 기반 구축 사업을 하는 정부 기관으로 활동 내용은 KERIS와 아주 유사하다. CiNii를 비롯한 학술논문 검색 서비스 제공, 전국적인 종합목록 DB 구축 및 학술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3.3.2. 특징

RISS 웹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http://www.riss.kr>)에서 일본/중국 자료 검색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를 검색하며 이용 방법은 국내 RISS 원문복사와 동일하다. 일본 대학에서 발송한 자료는 국내 소속 기관으로 도착한다.



[그림 15] 일본/중국 자료 검색 화면

NACSIS-ILL(NII) 신청은 “Agreement on the Korea-Japan ILL/DDS Project”에 의

10) NII 홈페이지 <http://www.nii.ac.jp/CAT-ILL/about> [인용 2012.3.4.]

거하여 일본에서 발행한 단행본과 학술지에 한하여 복사 신청이 가능하다. 단행본은 전체 페이지의 50% 미만까지 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은 불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장당 ¥35 ~ ¥50에 우송료가 가산되고 소요 기간은 평균 10 ~ 20일 정도이나 기관마다 편차가 크다. 향후 일본에서 발행된 단행본과 학술지 복사 신청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 소장 자료의 복사 및 상호 대출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3.3.3. NACSIS-ILL 이용 분석¹¹⁾

2008년부터 4년간의 신청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이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유형별 이용률은 학술지 논문 복사 81%, 단행본 부분 복사 19%로 학술지 논문 복사를 많이 이용하였다.

신청 후 도착까지의 소요 기간도 점점 단축되었다. 일본 기관들은 대부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지만 케이오 기쥬쿠 대학의 미타 미디어 센터(FA005198, 慶大三)에서는 제공 자료가 pp. 1-9까지는 무료, pp. 10-19까지는 ¥500으로 책정하여 요금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담당 사서에게 E-mail로 발송하므로 매우 신속하게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배송 기관이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다.

[표 18] NACSIS-ILL 신청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건수	비 고
신청건수	224	230	192	308	954	
학술지	201	169	159	244	773	
단행본	23	61	33	64	181	
제공	134	137	133	193	597	
소요기간	13.73	9.55	8.71	8.47		13.7일→ 8.4일

[표 19]는 우리 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NACSIS-ILL 신청 상위 10개 기관으로 소요 기간, ILL 요금 정책 등을 참고하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표 19] NACSIS-ILL 신청 상위 기관

순위	도서관코드	기관	건수	소요기간	평균요금	ILL 정책
1	FA005198 慶大三	Keio University Mita Media Center	65	2.97	3,694	No charge 1-9 p./ ¥500 10-19
2	FA002010 一橋	Hitotsubashi University Library	56	11.82	7,752	¥35
3	FA002145	Kanazawa University Library	50	9.87	8,892	¥35

11) WILL 사서용 사이트 <http://will.riss.kr/librarian/stat/> [인용 2012.3.4.]

	金大					
4	FA001379 東北大	Tohoku University Main Library	35	13.17	7,074	¥35
5	FA006791 和光大	Wako University Umene Memorial Lib.& IT Center	28	9.64	9,155	¥30(Black), ¥100(Color)
6	FA002848 阪大	Osaka University Main Library	25	11.71	7,457	¥40
7	FA002065 横国大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1	5.4	15,082	¥35
8	FA002407 名大	Nagoya University Library	20	6.09	8,138	¥35(Black), ¥105(Color)
9	FA009224 民博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Center	20	8.12	6,609	¥35
10	FA009530 奈文研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19	7.62	9,670	¥35

신분별, 학과별 신청 랭킹 순위는 [표 20], [표 21]와 같다.

[표 20] NACSIS-ILL 신청 상위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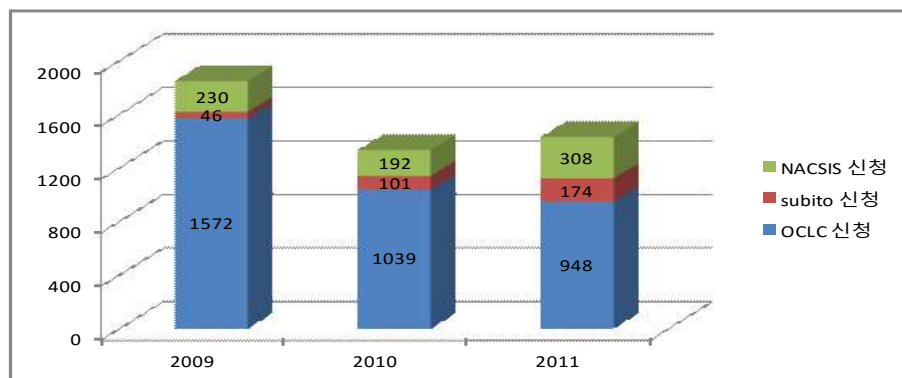
순 위	학 과	건수
1	동양사학	88
2	고고미술사학	67
3	과학사 및 철학	43
4	국어국문학	22
5	국사학	16
6	언어학	9
7	법학	8
8	사회교육	7
9	조선해양공학	4
10	종교학	3

[표 21] NACSIS-ILL 신청 상위 신분

순 위	신 분	건수
1	연구생	125
2	석 사	81
3	박 사	60
4	교수	15
5	대학생	12
6	시간강사	6
7	사서	5
8	연구원	3
9	회원	1
계		308

NACSIS-ILL은 일본 내에서 발행된 자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양사학, 고고미술사학, 과학사 및 철학과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며, 신분별로는 연구생, 석사, 박사 순으로 이용이 많다. 주로 석·박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들이 전체 이용의 8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OCLC, Subito, NACSIS-ILL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이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국외 상호대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각 시스템 고유의 특징과 유형, 요금,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림 16]은 3개 상호대차 시스템의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한 최근 3년간의 국외 상호대차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그래프로 OCLC ILL의 경우 2009년 85%에서 2011년 66%로 이용 비중이 줄어든 반면, Subito, NACSIS 이용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국외 상호대차 이용 현황 비교

국외 상호대차는 위에서 설명한 3개 시스템 이외에도 일본 국회도서관, 중국 CALIS, MEDLARS, BL의 ETHOS 등도 이용하고 있다. 이중 CALIS는 중국 600여 대학도서관 소장 단행본 및 학술지의 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RISS 웹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http://www.riss.kr>)에서 일본/중국 자료 검색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 검색 후 신청한다. 중국어 로마나이즈 검색은 가능하지만 간체와 번체 간 상호 검색이 불가능하고 띄어쓰기 부분에는 반드시 & 기호를 삽입해야 하는 등 검색이 불편하여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최근에는 스위스 국립도서관, 미국 Smithsonian Archives of American Art 등의 상호대차 담당 사서와의 메일 교환으로 M.F. 자료를 대출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외 상호대차는 담당 사서와의 직접 메일 교환으로도 귀중한 학술자료들을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제공 기관을 확보할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V. 향후 과제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상호대차실의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간의 국내외 이용 현황 및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호대차 서비스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교 이용자의 상호대차 신청은 원문복사 70%, 대출 30%로 원문복사가 많았으며, 자료 형태로는 학술지보다는 단행본이 많으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기관의 부족한 장서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국내외 기관과

의 대출 협약 확대와 RISS 대출 그룹 참여 등의 방안이 있다. 대출 협약 기관을 확대할 경우에는 단행본 복사 요청 상위 기관, 장서 수, 특성화된 주제 분야 등 세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기관의 장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호대차를 많이 이용하는 신분은 주로 석·박사 대학원생 이상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략과 홍보가 필요하다. 상호대차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이용자와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야 한다. 대학 신문, SNU NOW 온라인 소식지, 서비스 안내 리플릿 등을 이용하는 홍보와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정보검색 교육 등 다양한 이용 교육 활용 및 facebook 등 SNS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호대차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2009년부터 국내외 상호대차 택배비용을 도서관에서 전액 지원하는 비용 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전년도 대비 143%라는 놀라운 신청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비스 만족도 향상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1년 9월부터는 국내 타 기관 소장 “학술지” 논문의 원문복사 비용 지원 서비스도 확대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향후 비용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우리 기관 미 소장 자료 입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면 연구자들의 자료입수 비용 경감과 더불어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긴급 자료에 한하여 출판사를 통해 전자 원문을 직구입하는 PPV(Pay Per View) 서비스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연구자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연구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대차 담당 사서의 서비스 노하우와 업무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상호대차 담당사서는 국내외 상호대차 시스템의 특징과 서비스 유형, 비용,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상호대차 정책 및 동향을 파악하고 축적한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시스템 및 협력 기관 확대 등 서비스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서비스가 발전할수록 이용자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당연한 서비스로 인식하여 자료를 제공받기까지의 담당 사서들의 숨은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상호대차 사서의 고유 업무이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라면 전세계 도서관의 숨은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과제 외에도 국내 상호대차 운영 시스템 간의 서지 DB와 최신 소장정보, 목차정보 공유 노력이 필요하다. KERIS, KISTI 등 각 운영 센터들이 자체 구축하고 있는 학술지 목차정보, 소장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자료 검색이나 자료 제공 성공률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상호대차 우수 협력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상호대차실은 전체 업무 중 타 기관 소속 연구자들에게 우리 기관 자료를 제공하는 제공 업무 비중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제공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 자료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인쇄 자료의 반복 복사로 인한 자료 훼손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료 확충 예산 지원이나 원문복사 비용 지원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